서평

# 『그리운 너에게』

## 416 가족협의회, 416 기억저장소, 후타마나스, 2018

김지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책들이 출판되어왔다. 그 중에 『그리운 너에게』는 세월호 희생자 부모님들이 처음으로 기획하고 작성한 책이다. 세월호 4주기를 앞두고 110명의 희생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직접 쓴 편지로 엮은 『그리운 너에게』는 그동안 가슴에 묻어왔던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 "너의 성장으로 접할 수 있는 많은 경험과 추억을, 이제는 이룰 수 없는 꿈으로만 만나야 하는데 그게 안타깝구나, 이 땅에서의 네 짧은 삶은 너에게는 어땠을까?" –김동혁
>
> "아이들의 이름이 아픔과 눈물로만 기억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로 가는 그 길에 아이들 하나하나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김동영
>
> "너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 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갈게" –김혜선

편지 속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

* 한신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전공 석사.

면서 앞으로의 인생에 아이들이 존재하지 않음에 힘들어한다. 또 시간이 지나 그간 소외받았던 사회적 사건들처럼 세월호 참사가 외면 받고 희생자들이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 지게 되는 것을 걱정한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가려지고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다면 부모님들이 기억하는 아이들의 존재는 사회에서 부정당하고 이와 같은 참사가 반복되어도 무감각한 사회가 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 속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앞으로 남은 형제 자매들이 살아갈 사회에서는 더 이상 세월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집회, 서명, 도보 행진 등 자신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다짐한다.

이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유가족들은 4.16 가족협의회를 구성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시민단체와 연대하고 소통을 하면서 지난날 자신들의 무관심에 반성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도모했다. 4.16 가족협의회 구성원들은 정부와 언론의 왜곡된 보도를 통해 기록의 중요성을 느꼈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록을 모으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기록학을 전공하는 많은 연구자들도 세월호 참사를 통해 기록과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416가족협의회', '416기억저장소' 등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화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가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동체에서 기록화 활동을 하는 아키비스트는 기록화, 기록 수집 및 관리, 전시를 통해 공동체와 시민과의 관계 형성을 이루고 가족협의회의 활동과 목적을 파악하여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자는 공동체 기록화 경험을 기억하며 세월호 희생자 부모님들이 기획한 『그리운 너에게』를 읽고 부모님들이 왜 가슴 속 아이들의 기억을 되새기며 수신자가 없는 편지를 작성하고 책을 기획한 것에 대해 고민해보았다.

부모님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진 진실이 없는 현재, 점점 관심이 줄어들고 무감각해지는 사회를 바라보며 시민들이 세월호를 잊지 않고 이 책을 통해서라도 아이들 한명 한명의 이름이 불러지고 기억을 공유해주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기록으로 아이들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의 기억이 바래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를 바로 잡을 희망적인 존재로 기억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아야 한다.